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개발의 방향 탐색

오택환*

< 차례 >

- I. 서론
- II.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
- III. ‘작문’ 교과서 개발의 방향
- V. 결론

I. 서론

이 논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에 따라 개발될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면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및 평가를 구체화시켜 놓은 자료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기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체제를 바탕으로 각 교과에서 정한 교육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수-학습의 중심 자료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어 교과서가 중등학교 현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교사는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 지식을 확인하고, 교과서를 교실 수업의 기본 자료로 삼는다. 또

* 서울 노원고 교사, 고려대 강사.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교사로부터 배울 학습 내용을 얻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를 눈앞에 둔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심화 선택 과목으로 2, 3학년 때 ‘작문’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목상 작문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중이 높은 ‘문학’이나 ‘읽기’ 영역에 치중하거나 문제 풀이로 흐르는 옷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작문 과목이 대학입시에서 필요한 수험능력시험의 언어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50문항 가운데 5문항 내외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작문 교육의 외적인 현실은 논외로 하고, 작문 교과서 자체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문 교과서가 현장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교과서가 이론 위주의 부분적인 쓰기 연습에 치우쳐 실제적이고 전체적인 쓰기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영역의 완성된 글을 실제로 많이 써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습 활동에 제시된 과제는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쓰는 것보다는 쓰기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연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교과서 학습 분량의 과다로 인한 정규 작문 수업 시간에 글을 써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을 정규 수업 시간에 모두 소화하기 어렵고,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인터넷에서 참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베껴오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와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실 상황은 쓰기 수준과 능력이 다른 소수의 유능한 필자와 다수의 미숙한 필자가 공존하고 있으며, 쓰기 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학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한 실정이다. 그러나 쓰기 과제로 제시된 활동이 학생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예문으로 제시된

학생들의 글은 소수에 불과하며 내용도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행 작문 교과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작문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될 작문 교과서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교과서 개발 방향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요인은 교육과정, 교수자, 학습자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를 중심 축에 놓고 개발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작문 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II.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 고찰은 여러 차원에서 가능하다. 김동기(2000)는 국어교사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문교과서의 만족도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40명의 교사 중 36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고, 학생들 800명 중 535명이 작문 교과서가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하나(2003)는 작문교과서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작문이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 글쓰기에 필요한 구체저인 방법 보다는 작문의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셋째, 작문 교과서의 예문들이 전문 문필가의 글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부분 작문 교과서가 부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원고지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교수자, 학습자의 요인 가운데 학습자 측면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 학습 분량, 학습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실에서 실제적인 쓰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학습자들이 체감하는 학습 내용, 학습 분량, 학습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

1. 한 편의 완결된 쓰기 활동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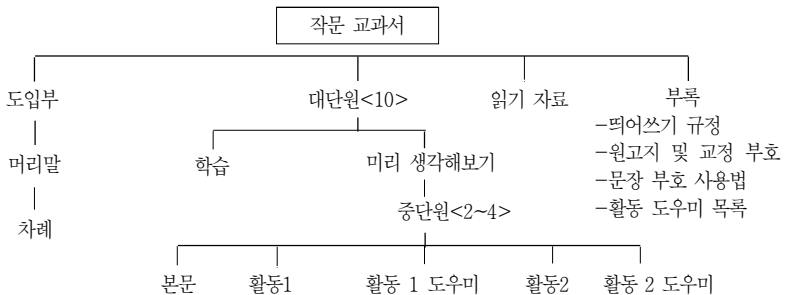
현행 작문 교과서는 한 편의 완결된 쓰기 활동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작문 교과서는 작문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과서 본문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언급하고 이어 학습 활동에서 이를 적용시켜 과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쓰기의 과정을 습득하는 데는 유리하나 완결된 전체의 글을 쓰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러한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을 실제 교과서 쓰기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13종이 발행되고 있다.

<표 1>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현황

교 과 서	지 은 이	전체면수
대한교과서(주)	이삼형 외 3인	296면
민중서림	우한용 외 3인	320면
(주)교학사	박영목 외 2인	320면
(주)금성출판사	박경현 외 8인	336면
(주)두산	임홍빈 외 5인	328면
(주)신원문화사	성낙수 외 1인	328면
(주)지학사	권영민	328면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한계전 외 3인	344면
학연사	이익섭 외 1인	308면
청문각	최 응 외 3인	304면
(주)천재교육	김대행 외 2인	320면
형설출판사	이상태	328면
(주)아침나라	권두환 외 2인	332면
평 균		322.46면

각 출판사마다 교과서 체제는 대단원 안에 중단원이나 소단원 배치를 약간씩 달리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작문 교육과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작문 교과서는 분절적 쓰기 활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교과서의 대단원별 구성 체제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 교과서의 대단원은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대단원의 하위 영역으로 중단원이 2~4개 설정되어 있다. 중단원 구성은 본문 → 활동1 → 활동1 도우미 → 활동2 → 활동2 도우미로 전개되어 있다.



<그림 1> ‘작문’ 교과서의 대단원별 구성 체제

위의 <그림 1>에서 중단원이나 소단원에서 작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본문에 나오고, 이어서 이론에 대한 학습을 위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매 단위마다 반복되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들은 처음에 과정별 학습 활동이 제시되면 호기심을 갖게 되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관심과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 1]의 학습 활동은 완성된 1편을 글을 쓰기보다는 본문에 나온 ‘내용 생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습득하고 적용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1] 활동 1. 다음은 ‘방송 언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려 본 것이다. 주어진 활동을 해보자.

<보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은어, 유행어, 선정적 내용, 의식의 획일화, 사고력 감퇴, 비판 정신 상실, 외국어의 범람……

- (1) ‘설득하는 글’을 쓰고자 할 때, ‘처음-가운데-끝’ 각각의 부분에서 다루기에 적절한 내용을 앞 페이지의 <보기>에서 찾아 모두 써보자.
- (2) 위 <보기>의 생각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한 다음 활동을 해보자.
 - ① 글의 화제와 방향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문장을 써 보자.
 - ② 화제와 관련하여 중심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문장을 써 보자.
 - ③ 글을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문장을 써 보자.

- 중앙교육진흥연구소(200~201)

위 [자료 1]의 활동이 제시되고 교과서의 다음 본문에 내용 조직과 관련된 활동이 또 다시 언급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내용 표현과 관련된 활동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화제를 선정하여 ‘내용 조직, 내용 표현, 고쳐쓰기’ 등 일련의 과정이 연계를 갖고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분절되면서 한 편의 완결된 글쓰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의 작문 교과서는 과정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중심의 ‘무엇에 대해 써보자’ 식의 제시가 아니라, 작문의 단계와 절차에 대한 이론 설명이 본문에 나오고 이어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이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쓰기 전 과정을 부분으로 나눠 단계별로 학습하기에 유리하도록 한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그러나 쓰기에 대한 이론을 잘 이해하고 학습한다고 해서 실제 한편의 완전한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쓰기 주제가 주어졌을 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다.

(가) 일단, 작문 교과서 내용이 실제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동일

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과서 분량 자체가 활동 부분 보다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조금 많다고 보여지고요. (3학년 작문 지도 교사)

(나) 작문 교과서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본문의 내용은 이론 설명으로 따분하고 지루한 내용이 있고, 1학년 때 배운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 쓰기가 저 에겐 지금 중요한데 교과서에는 전체 통괄로 제시하지 않고 부분으로 나뉘져 있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학년 작문 배우는 학생)

(다) 작문 교과서 체제 분석을 하다보니 너무 이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실제 학생들이 직접 써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발령받아 나간다면 교과서대로 작문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안했어요. (작문교육론 수강하는 학부 2학년생)

(가)~(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문 지도 교사,²¹⁾ 고등학교 학생,²²⁾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²³⁾ 모두 작문 교과서가 실제 학생들의 작문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 작문에 관한 이론을 최소화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글을 학생들이 직접 써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작문 화제가 주어지면 글을 쓰기 위한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 및 전개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초고쓰기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료 또는 자기 평가가 이뤄지고 고쳐쓰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학급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작문 과제와 활동이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1) 여, 총경력 15년 7월(고교 8년), 3학년 담임, 주당 작문 16시간 수업.

22) 남, 성적 상위권, 인문계열, 논술을 통해 수시모집으로 진학하려고 함.

23) 여, K 사립대 국어교육과 2학년, 쓰기 교육에 관심이 많음.

2. 교과서 학습 분량의 과다

현행 작문 교과서의 두 번째는 문제는 교과서의 학습 분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다. 현재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는 13종이 발행되고 있다. 1997년 교육부에서 개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 2002년부터 심화선택과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의 <표 1>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의 현황에서 이들 작문 교과서의 전체 평균 면수는 322.46면이다(오택환, 2007).

고등학교의 한 학기는 17주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교의 행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5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학기에 160쪽 정도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주일에 3시간 작문 수업이 진행된다. 1주에 10쪽 내외 교과서 본문 진도 나가면서 학습 활동을 해결하면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서 초고를 쓸 시간이 부족하고, 고쳐쓰기는 더욱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집에서 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면,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터넷 등 자료를 보고 베껴서 오거나 심지어 일부 미숙한 필자들은 다른 학생들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라) 1주일에 작문이 3시간 들었어요. 교과서 진도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수업을 진행하지만, 본문과 학습 활동만 진행해도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부족해요. 정작 학생들이 한편의 완전한 본인의 생각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3학년 작문 지도 교사)

(마) 교과서 분량이 너무 두꺼워요. 3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또 학습 활동도 너무 많고 과제도 어려워요. 우리들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와 교실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입시 준비도 바쁜데, 인근 ○○고는 언어 영역 문제집 푸는데 저희는 왜 안 해요? (3학년 작문 배우는 학생)

(바) 저는 고등학교 때 작문 수업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작문이

고3 때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언어영역 문제집을 선정하여 문제집을 풀었어요. 음, 제가 이번 작문 교과서 체제 분석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작문교과서가 정말 재미가 없었고,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분량을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학생이라 하였던ら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작문교육론 수강하는 학부 2학년생)

(라)~(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문 지도 교사, 고등학교 학생,²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²⁵⁾ 모두 교과서 학습 분량의 과다를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쓰기의 이론에 대한 내용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이론은 최소화시키고 실제적인 쓰기 활동을 위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동료 평가를 하며 고쳐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과서 학습 분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교과서 학습 분량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학년 교과교사의 협의를 통한 교과서 재구성도 시도해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쓰기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와 유리된 학습활동

현행 작문 교과서의 세 번째는 문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에서 멀어졌다는 점이다. 교실에는 35명 내외의 다양한 수준과 능력을 갖는 학생들이 섞여 있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숙한 필자와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미숙한 필자 또한,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쓰기를 거부하는 필자까지 혼재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쓰기 화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10대들의 고민과 갈등 상황, 그

24) 여, 성적 중상위권, 자연계열, 원하는 언어영역 등급이 안 나와 걱정함.

25) 남, K 사립대 국어교육과 2학년, 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은 중간 정도.

리고 언론과 매체에서 접하는 스포츠, 연예 뉴스 그리고 사회 문제 등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쓰기 화제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는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료 2] 1.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 (1) 이 글의 어떤 요소가 이 글을 연설문으로 만들었는지 말해 보자.
- (2) 이 연설문에서 특히 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보자.

2. 여러분이 평소 교장 선생님의 연설문을 듣고, 연설문의 특성에 비추어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자.

—학연사(172~173)

위 [자료 2]는 작문 학습 활동이라기보다는 독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더 부합한다. 최근 작문 교육 관점은 사고, 독서, 토론 활동과의 연계를 더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와 부합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작문 교과서의 최종적인 수행 활동은 ‘~써보자’라는 형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활동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워 할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는 교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해결하기 보다는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3] 4. 모둠활동 :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조사 보고문을 준비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한 분야를 맡아 함께 준비해 보자.

- ○○의 발자취 :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지
- ○○ 알기 : 그 지역의 교통 정보, 행정 구역 소개, 민원 봉사 소개
- ○○ 느끼기 : 유명한 시장, 가게, 장보기 명소
- ○○ 맛보기 : 유명 음식점 소개
- ○○ 즐기기 : 관광 명소, 문화 행사

위 [자료 3]은 지역의 문화재 답사 보고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행하기 힘든 과제이고, 이런 종류의 과제를 학생들은 관심과 흥미를 잃기 쉽다.

(사) 작문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이 2001년이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 2008년 인데 학습 활동에 제시된 지문이 2000년 한국영화 산업에 관한 내용 이예요. 또, 음…… 서양 고전을 읽고 내용을 전개하는데 어려워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가 없어 해요. (3학년 작문 지도 교사)

(아) 작문 교과서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해도 졸음이 몰려와요. 쓰기 과제도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요. (작문 수업을 듣는 고3 학생)

(자) 작문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은 인터넷과 영화 등을 좋아하고 새롭고 빠른 것을 원하는데……, 교과서의 내용은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주제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문교육론 수강하는 학부 2학년생)

(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는 동 학년 3학년 작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나눈 면담의 일부로 ‘작문’ 교과서의 내용이 시기 적절하지 않아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아)는 3학년 작문 수업에 참석한 학생²⁶⁾과 나눈 면담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진부하면서 고리타분하여 재미가 없다는 내용이며, (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대학생²⁷⁾과 인터뷰 내용 중 일부로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을 학습자 측면과 학습 활동을 위주로 고찰해 보았다. 교과서가 이론 위주의 부분적인 쓰기 연습에 치우쳐 실제적이고 전체적인 쓰기 활동이 미약, 교과서 학습 분량의 과다로 인한 정규 작문 수업 시간에 글을 써야 할 시간이 부족, 학습 내용과 학습

26) 남, 성적 중하위권, 인문계열, 언어영역 성적이 오르지 않아 힘들어 함.

27) 여, K 사립대 국어교육과 2학년, 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은 중간 정도.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와 유리된 것을 지적하였다.

Ⅲ. 작문 교과서 개발의 방향

여기서는 앞서 제시된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새롭게 개발될 작문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영민(2007) 개정 제7차 작문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을 살피고, 작문 교육의 방향을 텍스트 중심, 범교과적 활용을 강조, 반성적 사고를 강조, 정의적 요인을 강조, 작문 경험을 강조 등 5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작문 경험을 강조하는 작문 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문 교과서에 학생들의 실제 적인 작문 경험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삼형(2007)은 작문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맥락화된 작문 활동, 모델링(modeling)의 구현, 고쳐쓰기 과정의 강조, 협동적 작문 활동의 중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작문 교과서 개발 방향의 논의가 다소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전개시킨 아쉬움이 있다. 막연한 구호나 당위성에서 벗어나 좀더 실제적인 작문 교과서의 출현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은 교실 수업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교과서가 예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 현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문 교과서는 작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실 수업의 개선을 위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 실제 작문 활동 위주의 교과서

새롭게 개발될 작문 교과서는 실제 학생들의 작문 활동을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작문 교과서는 내용 구성이 쓰기 이론 위주의 본문 내용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이론 중심의 학습 내용과 부분적인 학습 활동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쓰기 활동 위주로 만들어져야 한다.

(1) 작문 워크숍(writing workshop) 중심의 교과서

실제 작문 활동 위주의 교과서를 위해 작문 워크숍 중심의 교과서 가 개발되어야 한다. 작문 워크숍은 교사가 어떻게 글을 쓰는가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간략한 시범을 보이고, 학생은 이에 따라 혼자 또는 동료와 협의를 거쳐 실제 글을 쓰면서 진행하며,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작문 방법(Fletche, R ; Portalupi, J, 2001)이다. 이는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와 공유하기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작문 워크숍 중심의 교과서는 핵심적인 작문 이론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실제 작문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과서를 말한다.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작문 과제를 수행하고, 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가 친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료 필자와 적극적인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작문 활동(writing activities)이 강화된 교과서

실제 작문 활동 위주의 교과서를 위해 작문 활동이 강화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영어 교과서에는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수학 익힘책’과 ‘영어 학습 활동책(English Activities)’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한다(동아일보, 2008. 10. 29). 국어과에서는 아직 이런 보조 자료의 보급과 시행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향후 작문 교과서 개발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의 작문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직접 쓰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학생들은 별도의 공책이나 원

고지를 준비해야 하고, 교사는 원활한 쓰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지를 만들거나 원고지를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교사와 학생의 노력에 비해 자료의 보관과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고 자료 분실의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다. 작문 연습장(writing workbook)은 교과서의 이론적인 설명 부분을 조금 줄이고 학습 활동의 공간을 일정 부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직접 이곳에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이 실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교과서 집필 기준과 검정 기준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교과서가 구현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지금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형식도 가능해져야 한다.

2. 학습 분량이 적정하고 학습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된 교과서

새롭게 개발될 작문 교과서는 학습 분량의 적정화와 학습 내용의 상세화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1) 학습 분량이 적정한 교과서

기존의 작문 교과서가 쓰기의 과정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교과서 본문에서 각 단계마다의 이론적인 설명과 이를 수행해야 할 학습 활동의 제시로 인해 학습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쓰기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화된 설명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체육, 음악, 미술에 관한 이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많이 알고 학습한다고 해서 체육, 음악, 미술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운동 연습과 기능 습득, 가창과 악기 연주, 데생과 채색 등의 꾸준한 반복을 학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작문도 기초적인 이론 학습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쓰기 연습을 통해 쓰기 기

능을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작문 교과서는 작문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인 설명만 제시하고 실제 쓰는 활동이 이뤄지도록 학습 분량을 적절히 조정해 할 것이다.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전체의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쓰고 이를 동료와 상호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고쳐쓰는 활동이 교과서에 구현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2) 학습할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된 교과서

마찬가지로 기존의 작문 교과서는 다양한 쓰기 학습 활동이 제시되다 보니 학습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막연하게 ‘~에 대해 써보자. ~자 이상 표현해 보자’는 식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자가 제시된 학습 활동의 내용을 단계별로 따라 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하다. 내용 생성은 어떻게 하고 내용 조직은 어떻게 이뤄지며 표현하기와 고쳐쓰기의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실에는 소수의 능숙한 필자 보다는 다수의 미숙한 필자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숙한 필자가 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과 태도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배려해야 한다.

3.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교과서

새롭게 개발될 작문 교과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지문과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교과서 집필 기준(교육과학기술부, 2008)과 교과서 검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 2008)에도 ‘(5) 학습자의 국어 능력 발달을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 (6) 국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교과서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에 한해 단계형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통 3개의 학급의 학생들을 보충, 기본, 심화 수준으로 나누고, 외부 강사를 1명 총원하여 4개 학급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여 학급 내에서 동질집단이나 이질집단을 편성하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상중하로 나뉘어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 활동이 너무 어렵게 제시되면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쓰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또한 너무 쉽게 제시되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흥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개발될 교과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너무 어렵고 힘든 주제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교과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본문에 제시된 이론적 설명이나 학습 활동의 예문, 그리고 글의 화제 등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는 본문이나 학습 활동의 예문으로 제시된 글이 대부분 전문 필자의 글이나 명문(名文)으로 구성되어 문화 전달과 계승의 측면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화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서 출발하여 학습자들을 배려하여 학습 활동을 재미와 흥미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문이나 학습 활동의 예문으로 제시하는 글은 학습자들이 친근감을 갖고 접근 할 수 있도록 또래 학생 필자의 글을 더 많이 보강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발될 작문 교과서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쓰기 학습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 4] 1. 모둠활동 : 다음 <보기>의 쓰기 화제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아래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글을 써 보자.

- 교내에서 학생의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 받아야 하는가?
-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은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 성적에 의한 우열반 편성과 자율학습실 사용은 정당한가?
- 0교시 수업과 강제 자율학습은 필요악인가?
- 방송과 언론의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보도는 정당한가?
- 학생의 두발과 복장은 어디까지 규제되어야 하는가?

- (1) 모둠의 편성과 구성 :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어느 한 영역에 인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2) 관련 자료의 수집 : 모둠원 각자 인터넷이나 관련되는 참고 도서나 자료를 수집한다.
- (3) 모둠 토의 : 각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모둠 공동의 쓰기의 목적과 주제를 정한다.
- (4) 개요 작성하기 : 각자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수합하여 가장 적절한 개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 (5) 쓰기 분담 및 초고 쓰기 : 각자 쓸 부분을 분담하고 초고를 작성해 본다.
- (6) 돌려 읽고 평가 : 전체의 초고를 통합하여 모둠원이 돌려 읽고 평가 기준에 맞게 문제점을 찾아본다.
- (7) 수정 보완 및 고쳐 쓰기 : 지적된 수정 보완 사항을 토대로 각자 맡은 부분을 고쳐쓴다.
- (8) 결과 공유하기 : 고쳐써서 완성된 글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공유한다.

위 [자료 4]는 새로 개발될 작문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예시 활동이다. 이 예시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5가지의 학습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생에게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보다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과제에 수행에 대한 참여도가 더 높게 나오며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둘째, 제시된 개별 과제는 최근 논쟁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의 일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고 최근 사회 문제들에 대해 과거의 사건보다 높은 관심을 보인다. 셋째, 과제의 하위 항목(‘(1)모둠의 편성~(8)결과 공유’)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 동료 협의, 고쳐쓰기의 과정을 일관되게 서술하여 학습자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작문 교과서는 작문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고, 학생의 실제적이고 한 편의 완결된 쓰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다. 작문 교과서는 대체로 작문에 대한 이론이 본문에 나오고, 이어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이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쓰기 전 과정을 부분으로 나눠 단계별로 학습하기에 유리하도록 한 취지에서 구성되었으나, 매 단원에서 반복되는 형태로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교사들도 외면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체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다. 이론 부분을 교과서 앞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시하고, 교과서 뒷 부분에서 실제적인 쓰기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쓰기 활동은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자기 성찰, 학습을 위한 쓰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의 전체 조건은 작문 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 작문 교과서 검정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개정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국어 교과서 검정 기준(안)(2008)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영역은 전체 100점 가운데 내용 선정 및 조직(25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20점)로 구성 및 체제의 창의성(13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문 교과서의 검정 기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구성 및 체제의 창의성 영역의 비중을 좀더 높인다면 기존의 작문 교과서와 다른 새로운 교과서의 출현도 가능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발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가 이론 위주의 부분적인 쓰기 연습에 치우쳐 실제적이고 전체적인 쓰기 활동이 미약하다. 둘째, 교과서의 학습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와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작문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될 작문 교과서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첫째, 실제 작문 활동 위주의 교과서, 둘째, 학습 분량이 적정하고 학습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된 교과서, 셋째,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교과서이다.

작문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케하는 작문 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이론을 위한 이론이나 연구’의 차원을 넘어 고등학교 현장에서 작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화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8. 10. 30. 투고되었으며, 2008. 11. 6.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92.10.30).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05].
-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국어 집필기준(안)*. 미발행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검정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안)*, 미발행 자료.
- 김동기(2000), “작문교과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 동아일보, “중고교 수준별 영-수 교과서 내년 첫선” 2008. 10. 29. 사회.
- 박영민(2007), “작문 과목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과 작문 교육의 방향”, 『*작문 연구*』 4, 9-32. 한국작문학회.
- 박정진(2007), “국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18, 101-125. 한국어교육학회.
- 양명희 외(2006), “초등학교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작문 연구*』 2, 113-143. 한국작문학회.
- 오택환(2007), “고등학교 작문 교육의 현황과 전망”, 『*작문 연구*』 4, 57-86. 한국작문학회.
- 이삼형(2007), “작문 과목 교과서의 개발 방향”, 『*작문 연구*』 4, 33-56. 한국작문학회.
- 이성영(2006), “제7차 초등학교 ‘쓰기’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작문 연구*』 2, 45-73. 한국작문학회.
- 이재기(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실행 방안”, 『*청람어문교육*』, 36, 81-108,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하나(2003), “공업고등학교 작문지도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Applebee, A. N.(2000), Alternative models of writing development, In R. Indrisano & J.R. Squire (Eds.) *Perspectives on writing*, Delaware : IRA.
- Fletche, R. Portalupi, J.(2001), *Writing Workshop*, Portsmouth, NH : Heinemann.

<초록>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개발의 방향 탐색

오택환

본 연구는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발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현행 작문 교과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한 편의 완결된 쓰기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의 학습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와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개정 작문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될 작문 교과서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작문 활동 위주의 교과서, 둘째, 학습 분량이 적정하고 학습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된 교과서, 셋째,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교과서를 지향해야 한다.

앞으로 이들 논의는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이며 풍성하게 진행되어 더욱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이론을 위한 이론이나 연구’의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작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화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될 것이다.

【핵심어】 작문 과목, 작문 교육, 작문 교과서, 작문 교과서 개발

<Abstrac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avigation for High School 'Writing Textbooks'

Oh, Taeg-hw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problems and of the current writing textbooks and to explo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ext writing textbooks in High school.

The current of writing textbooks are problem. First, It learning activities was the lack of a completely writing activity. Second, It worth learning was too many. Third, It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was departed from learners skills and levels, interested and interesting.

The Writing textbooks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will be developed in 2007 was direction of development. First, The writing textbooks was based on the actual writing. Second, The writing textbooks was appropriate amount of learning, detail given learning. and Third, The writing textbooks was directed to the learner's level and ability, interested and interesting.

And the systematic discussion of the future, more precise and should be fully toward more solid. These small efforts are taken to fruition 'theory for the theory and research', writ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beyond school and to strengthen the nature of the recovery will be a small foundation.

[Key words] writing subject, writing education, writing textbooks,
development of writing textbooks